

특허경영의 나아갈 길

지난 4월 초 전 세계 237개 연구소·정부기관·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평가는 특허의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함께 고려된 것이다. ETRI가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것은 우리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다.

ETRI의 특허경영전략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ETRI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질적 성장 중심의 특허경영전략에 따른 결실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부터 ETRI는 단순히 특허출원건수를 늘리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표준·핵심특허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 특허경영전략을 수립, 향후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연구기관 수준의 IP(지식재산권)전담 조직 구축 등을 전략 목표로 정해 특허경영전략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ETRI 특허경영전략에 따른 몇 가지 특징적인 추진사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발명등급제도'의 시행을 통해 발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기술성, 특허성, 시장성 등에 관한 다양한 평가 요소의 관점에서 발명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기초하여 차등화된 특허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특허 전문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또한, '1-1-1 운동'을 추진하여 연구원 1인이 1년에 세계적인 혁신 아이디어 1건을 창출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ETRI가 세계적인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들에게 개방된 시스템과 연구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경력이 많은 연구원들을 특허전략 전문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특허경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허 코디네이터는 연구경력이 풍부한 연구원들에게 연구 활동 이외에도 전문화된 영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큰 제도이다.



글 김홍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hnkim@etri.re.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미국 볼(Ball) 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TRI 임베디드SW기술센터장, 기획본부장,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ETRI의 특허성과

이러한 특허경영전략 추진을 통해 ETRI가 얻은 성과는 단순히 외부기관에 의한 우수한 평가만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ETRI는 특허 라이선스

스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총 1천72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했다. 2011년 산업기술 연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ETRI의 기술료 수입 규모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의 전체 기술료 수입에서 거의 50%를 차지한다. 눈여겨 볼 점은 기술료 규모뿐만이 아니다. ETRI가 글로벌 특허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특허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IP 펀드와 연계를 통해 잠자고 있던 다수의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여 총 1천125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으며, 총 11개의 표준 특허풀에 가입하여 1천만 달러 이상의 해외 로열티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2008년부터 추진 중인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에 관한 미국특허소송을 통해서도 지난해 말까지 총 12개 업체와 약 7천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2억~3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연연의 특허경영 방법론

출연연의 특허경영전략은 창출, 가공, 활용의 측면에서 체계화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특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허 건수 늘리기 위주의 양적 성장 대신, 어떻게 하면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특허전략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소사를 통해 올바른 연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허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 연구원이 제출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특허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가공하는게 중요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던 1-1-1 운동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허 가공(Patent Engineering)의 관점에서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특허 발굴을 위한 특허자산실사, 전략적 활용 목적에 맞추어 특허를 묶는 특허 패키징 등과 같은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창출되어 가공된 특허들을 활용, 그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단계는 특허

경영전략의 성패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풀 가입, 국내·외 창의자본과 연계한 다양한 특허활용모델 추진, 개별 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싱,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권리보호활동 등이 모두 성공적인 특허경영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들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특허경영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특허전담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새삼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출연연 특허의 잠재적 가치와 중요성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14개 출연연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유한 특허는 약 2만2천 건에 달한다. 비교를 위해, 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약 50% 정도 더 많은 특허를 가진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Ericsson)의 예를 살펴보자. 선도적 특허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에릭슨이 지난해 동안 특허 라이선스로만 얻은 수입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연구회 소속 출연연 전체가 거둔 기술료 수입의 무려 12배에 달한다. 출연연과 일반 기업을 수치 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겠지만, 특허경영전략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한편으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저평가되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들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모든 출연연이 본격적으로 특허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허성과로 재창출해 낼 수 있다면, 출연연 특허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다시 보다 높은 특허 로열티 수입 창출을 가져와 출연연의 연구개발 재원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